

1보다 크거나 작거나: 차재민 작가 연구

『1보다 크거나 작거나』는 차재민 작가가 주목해 온 사회와 개인의 문제가 그의 무빙이미지 실천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하고, 무빙이미지 작업을 지면에서 보여주는 방식을 실험해 보고자 시도한 결과물이다. 작가가 주목해 온 작업 주제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파트별로 소개한다. 다양한 사회 문제와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아 온 작가가 최초의 문제의식을 느낀 순간부터 이를 연구하며 어떻게 작업마다 리서치와 프로덕션 방식을 바꾸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작업 아래 있는 리서치의 과정과 촬영 현장 기록과 더불어 그간 영상 작업에 비해 알려지지 않았던 퍼포먼스와 드로잉, 설치 작업을 함께 정리했다.



작가 소개

차재민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며 영상, 퍼포먼스, 설치 작업을 한다. 영상에서는 합성 이미지가 아닌 촬영한 영상을 주로 사용한다.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현실에 접근하고, 그것을 미술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작업을 구체화하며, 개인의 삶 안에 사회가 어떻게 스며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작업으로 완성한다. 스스로 작업을 최소한의 작위로 연결된 무빙이미지라 여긴다. 시각 예술과 다큐멘터리의 가능성과 무력함에 관한 질문을 품고 도시, 노동,

정치의 주제를 포괄하는 자본주의의 문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심리와 돌봄의 문제, 여성과 질병의 문제를 다루어왔다. 작업마다 최초의 문제의식과 그것을 심화하는 리서치에 따라 프로덕션과 촬영의 방식을 조율하며, 드로잉과 설치, 퍼포먼스 작업도 지속해 왔다. 불분명하고 부수적인 세부 정보를 그려모아 핵심을 만드는 일, 진료, 수사, 탐사, 정신분석 같은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해왔다. 최근에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자 한다.

안개와 연기

Fog and Smoke

2013,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HD video, color/sound,
20minutes



금용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개발 잔해가 버려지는 외곽 마을을 마을의 마지막 어부가 트랙터를 타고 신도시를 가로지른다. 어두운 밤,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탭댄서의 춤추는 소리가 텅 빈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공명한다. 댄서는 도시개발 속도와 그에 비례하는 욕망이 이미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처럼 끊임없이 춤을 춘다. 한편, 집 앞 바다가 매립되어 일터를 잃은 어부가 매립지 위에 세워진 신도시를 가로질러 먼바다로 향한다. 탭 댄서와 어부의 이동을 따라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본다.

미공과 크로마키

Chroma-key and Labyrinth
2013,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HD video, color/sound,
15min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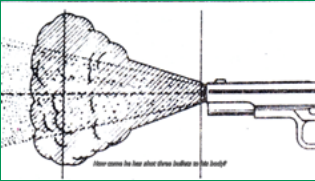
섬세한 카메라 움직임과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한 영상 작업이다. 케이블을 설치하는 손과 동작은 같지만, 노동 가치가 거세된 손이 병치되어 있다. '손'의 은유는 노동 소리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전문가, 장인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을 신성화한다. 양쪽으로 찢어진 극단의 추상성은 노동을 인격으로부터 분리하고 노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 작업은 우리가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감각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주요작품

독학자

Autodidact

2014,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HD video, color/sound,
9minutes



군 의문사 유가족이자 재야 법의학자, 허영춘 선생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작업이다. 허영춘 선생은 1984년 제5 공화국 당시 군에서 사망한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다. 그는 아들의 의문사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법의학 공부했다. 이 영상은 선생이 공부한 법의학 자료와 손 글씨를 확대해 보여주면서 두 사람의 낭독을 각각 들려준다. 권력이 가려버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싸웠던 지난 30년 동안의 사건들, 정치, 삶, 학문적 증거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를 발췌해 내레이션 대본을 작성했다. 한 번은 허영춘 선생이 낭독하고, 다시 한번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낭독한다. 눈으로 읽기, 소리 내 읽기, 다시 소리 내 읽기를 통해 타인의 '목소리'를 반사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히스테릭스

Hysterics

2014,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HD video, color/sound,
7minutes



하이네의 시 「눈물의 계곡」에서 검시기가 가련한 연인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대목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이 상황에서 연인의 죽음 그 자체가 배제되는 점에 주목해, 히스테리와 질문하는 주체의 상관관계를 생각했다. 백지와 조명이 반응하는 연극적인 상황을 통해 '무의미'와 히스테릭이 공존하는 상태가 연출된다. 원 씬 원 컷으로 한 번에 촬영했다.

카메라가 지나갈 때마다 블랙라이트가 발광하고, 백지에 떨어진 액체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블랙라이트는 혈흔을 수색하는 과학 수사법으로, 빠나 피에 들어있는 인(燐)에 반응한다. 고통은 질문하게 하고, 질문하는 자는 히스테릭해진다. 끝까지 질문하는 사람은 희생된 사람들을 찾아낸다.

1보다 크거나 작거나

Almost One

2018,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FHD video, color/sound,
28minutes



연기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에 카메라 한 대가 놓여 있다. 아역 배우를 지망하는 아이들이 연기 수업을 받는 중이다. 아이들은 대체로 고뇌나 의심 없이,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대로 곧잘 따라 한다. 아이들의 이러한 속성은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 탄력을 더하기도 하고 재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린 배우들은 때로 역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파악할 수 없다. 이때 아역 배우들은 주어진 상황과 다른 맥락의 감정을 유도당하며, 그 감정을 대본 내용에 적용해 보는 방법을 교육받는다. (1보다 크거나 작거나)는 교육을 받는 와중에 포착되는 아이들의 미묘하고 본능적인 '거절'의 표정에 주목한다. 무지의 상태를 지성으로 포장하려는 설득 앞에 스치는 표정, 무지를 벗어나려는 의지를 담아낸다.

보초 서는 사람

On Guard

2018,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FHD video, color/sound,
18minutes



카메라는 보안 요원과 요양 보호사를 교차하며 살아가는 K의 일상을 따라간다. 무언가를 돌보고 지킨다는 것은 지난하게 반복되는 과정들의 연속이다. 규칙과 반복의 감각을 전달하는 대칭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풍경이 이어지고, 그 풍경 안에 통화하며 걷고 있는 K의 모습이 커져야 하는지, 무엇을 새어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조금씩 무화된다. 막대 걸레가 쓰러지거나, 쌓여 있는 의자들이 무너지거나, 전깃줄이 끊어지거나, 신발 한 짝이 떨어지는 일상의 사태들이 불안을 가중시킨다.

카메라는 보안 요원과 요양 보호사를 교차하며 살아가는 K의 일상을 따라간다. 무언가를 돌보고 지킨다는 것은 지난하게 반복되는 과정들의 연속이다. 규칙과 반복의 감각을 전달하는 대칭과 수평으로 이루어진 풍경이 이어지고, 그 풍경 안에 통화하며 걷고 있는 K의 모습이 커져야 하는지, 무엇을 새어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지 그 의미가 조금씩 무화된다. 막대 걸레가 쓰러지거나, 쌓여 있는 의자들이 무너지거나, 전깃줄이 끊어지거나, 신발 한 짝이 떨어지는 일상의 사태들이 불안을 가중시킨다.

사운드 가든

Sound Garden

2019,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FHD
video, color/3-channel
sound, 30min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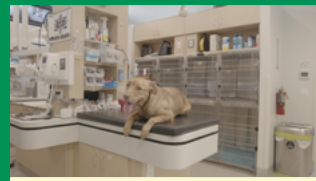


큰 나무를 이동시키는 과정을 담은 화면과 한국의 여성 심리 상담사 인터뷰가 섞인 영상이다. 보기 좋게 자라도록 관리되고 도시에서 살아남도록 조련 받은 훈련목이 심어진 땅에서 뿔뿔로 도망치는 과정들을 담은 화면에 상담의 양가성과 복잡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자연물을 상품화하고 개인의 정신을 관리하는 측면을 다루는 후기 자본주의적 시선과 더불어, 자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워진 상태에 처한 타인을 돕는 존재가 지닌 반자본주의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이 공존한다. 상담은 이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회 환경 속에서 망가진 인간의 정신, 자력으로 회복 불가능해진 타인의 내면을 역순으로 풀어내는 방대한 대화다. 이 막막한 미션이 풀고 있는 역할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된다.

엘리의 눈

Ellie's Eye

2020, Two channel
video installation,
FHD video, color/sound,
11minutes



인간이 두 눈을 앞을 향해 열면 180도 시야를 확보한다.
The human eyes both face forward,
and cover a visual field of 180°.

파운드 푸티지와 직접 촬영한 장면을 섞어 만든 영상과 에세이로 구성된 2채널 에세이 필름이다. 엘리는 개발 중인 AI 심리상담사의 이름이자, 영상에 등장하는 개의 이름이다. 개와 AI 아바타는 인간의 하위 주체로서 동질성을 가진다. 영상은 엑스레이, 벽 투시, AI 심리 상담 기술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며 치료 기술과 인간의 투시 욕망의 관계를 살핀다. 여기에 눈, 바라봄, 시선에 관한 사실과 픽션을 교차한 에세이가 병치된다. 심리와 정신을 진단하는 기술과 의료 목적의 투시와 이미지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미래의 사회와 기술이 각기 다른 개인의 정신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인간의 심리가 사물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는 작업이다.

네임리스 신드롬

Nameless Syndrome

2022,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4K video, color/sound,
24minutes



질병과 클리닉에 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다섯 장으로 구성된 내레이션과 검사실의 거울, 유리, 물 등과 같이 어딘가에 상으로 맺히는 신체 이미지가 포개어지는 에세이 필름이다. 진단명이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인터뷰하고 질병에 관한 서적을 읽은 작가는 책에서 발견한 문장으로 '과학(의학)이 알아낸 것과 알아내지 못한 것 사이의 모순'에 집중하는 내레이션 스크립트를 구성했다. 카메라는 클리닉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와

치료의 현장을 관찰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과 신체의 형상을 세심하게 담아낸다. 과학(의학)의 체계 바깥의 질병을 앓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제자리 비행

Maneuver in Place

2022,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
4K video, color/sound,
10minutes



소리 연극(audio play)을 발생시키는 퍼포먼스 영상이다. 현책방에 모인 퍼포머들은 작은 소음을 일으키고 그것을 녹음한다. 이들은 비언어적인 소리를 내고, 카트를 밀고 다니며 책을 쌓았다가 우르르 무너뜨리고, 번갈아 책을 낭독하고, 디제잉을 한다. 이질적인 것들을 끌어들이고, 과거의 문화에 현재의 문화를 섞으며, 조금씩 어긋난 것들의 조합을 만들어 낸다. 이 영상은 현책방에서 벌어지는 한 번의 소용돌이를 관찰하며, 소리와 행위의 화학반응을 기록한다. 또한 이 영상은 어딘가에서 격리된 사람들 혹은 은둔자들에게 띄우는 일종의 안부다.

주요작품

개인전

- 2020 —마음 1, 2, 3의 문제해결, 카디스트, 샌프란시스코, 미국
- 2018 —사랑폭탄, 삼육빌딩, 서울, 대한민국
- 2015 —데이 포 나이트, 신도문화공간, 서울, 대한민국
- 히스테릭스, 두산갤러리, 뉴욕, 미국
- 2014 —히스테릭스, 두산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단체전 및 스크리닝 (선별)

- 2023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2023 <전자적 숲; 소진된 인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 제 61회 뉴욕 영화제—커런츠 부문, 필름 앳 링컨센터, 뉴욕, 미국
- 제 40회 이바 인터네셔널 아일랜드 비엔날레— 이삭 굶는 사람들의 사회, 움스텐 하우스, 리머릭, 아일랜드
- 제 69회 오버하우젠국제단편영화제 - 국제 경쟁, 오버하우젠, 독일
- 2022 —Natasha, 싱가포르 비엔날레 2022, 싱가포르 미술관, 싱가포르
- Frieze Film at Frieze Seoul, 막집, 서울, 대한민국
- 아트스펙트럼2022, 리움삼성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 2021 —우리 집에서, 워치 앤 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대한민국
- 재단과 치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대한민국
- 2020 —Art of the Real—단편 프로그램, 필름 앳 링컨센터, 뉴욕, 미국
- 아트 플랫폼 아시아 2020—토끼방향 오브젝트, 덕수궁, 서울, 대한민국
- 연대의 흙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대한민국
- 2019 —강박2,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 완벽한 기술,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대한민국
- 2018 —In the open or in Stealth,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 바르셀로나, 스페인
- 2017 —공동의 리듬, 공동의 몸, 일민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 제2회 아시아 필름 앤 비디오 아트 포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대한민국
- 2016 —제11회 광주비엔날레—제8기후대_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 대한민국
- 제9회 SeMA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 내러리 키르르 하라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 2015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익스펜디드: To the Sound of the Closing Door, 베를린예술원, 베를린, 독일
- 2014 —토탈리콜: 기록하는 미술, 기억하는 영화관, 일민미술관과 한국영상자료원, 서울, 대한민국
- ICA@50: pleasing artist and publics since 1963, 펜실베이니아대학미술관, 필라델피아, 미국
- 2013 —기술어진 각운동, 국제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 제10회 환경영화제—한국 단편 영화의 흐름 (경쟁), CGV, 서울, 대한민국
- 2012 —플레이 타임, 문화역284, 서울, 대한민국

수상

- 2023 —제 69회 오버하우젠국제단편영화제—국제 경쟁 심사위원 특별언급상, 오버하우젠, 대한민국
- 2022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심사위원 특별상, 서울, 대한민국
- 제3회 아트스펙트럼 작가상, 삼성리움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 2014 —제4회 신도리코작가지원 프로그램, 재단법인 가헌신도재단, 서울, 대한민국
- 2013 —제4회 두산연강예술상—미술, 연강재단, 서울, 대한민국
- 제10회 환경영화제—우수상, 서울환경영화제, 환경재단, 서울, 대한민국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연구
조사구령